

10·27 법난 기념관 건립 ‘가시화’

불교계 최대 치욕사건인 ‘10·27 법난’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조계종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27법난 기념관’의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건립불사의 첫 발을 내딛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집행위원회(위원장 지현스님)는 지난 5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5월 28일 회의를 열고 총무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총액 1688억 원과 2015년도 예산요구안 541억 원을 의결했다”면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의 핵심이자 종단 총본산 성역화사업의 1차 사업인 기념관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총본산성역화 집행위, 사업계획 확정

2018년 목표...전법회관 인근
지상6층, 지하5층 규모 구성
피해자 치유시설 계획도 발표

그동안 부지매입 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진척을 보이지 않았던 기념관 건립이 예산과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불사 추진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조계사 일원에서 추진되는 법난 기념관은 기념관과 피해자 치유시설로 나눠 건립되며, 국가보조금 1534억 원, 자부담 150억 원 등 총 1688억 원이 소요된다. 2015

년 기본조사 설계를 시작으로 2017년 착공에 들어가 이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계종 전법회관 인근에 세워질 기념관은 연면적 2만 100㎡(6070평)에 지상 6층, 지하 5층 규모로 구성됐다.

조계사 안심당 인근에 들어설 법난 피해자 치유시설은 연면적 1418㎡(425평)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다. 이곳에는 심리치료, 물리치료, 진료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치유

시설과 물리치료실, 법당 등이 예정돼 있다.

종단 성역화사업 집행위는 지난 2월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사업계획 수립 업체로 선정하고 계획서 작성과 사업설명회, 제안서 심사 등을 추진해 왔다. 오는 7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구서를 제출하고,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집행위원장 지현스님은 “이미 완공돼 운영에 들어갔어야 할 기념관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불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많이 늦었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치욕적인 역사를 치유하는 시설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신임 총무부장 정만스님 임명

제34대 2기 집행부 구성

사회부장 정문스님
호법부장서리 세영스님
중앙박물관장 화범스님



정만스님
총무부장



정문스님
사회부장



세영스님
호법부장 서리



화범스님
중앙박물관장

조계종 총무원 신임 총무부장에 정만스님(부산 범어사 금강암 주지), 사회부장에 정문스님(중앙총회의원), 호법부장 서리에 세영스님(여주 신록사 주지)이 각각 임명됐다. 또 중앙박물관장에 화범스님(양평 사나사 주지), 수익사업담당 총괄 특보에 설암스님(강릉 용연사 주지), 사찰음식담당 특보에 대안스님(사찰음식전문가)이 임명되는 등

종단 제34대 2기 집행부 구성이 확정됐다.

▶관련기사 3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5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총무부장, 사회부장, 호법부장 서리, 총무원장 특보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 자리에서 “오늘 임명을 받은 스님들은 중앙총회와 부·실장

소임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종단을 잘 이해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리라 믿는다”면서 “더불어 겸손한 마음으로 불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임명장을 받은 스님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임기 중에 교구본사 주지 책임제, 조계사 성역화 사업, 승가복지 등 3대 사업을 주요과제로 삼은 만큼 총무부장과 기획실장 스님이 이 부분에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삼원이 다 화합해 총무부장을 중심으로 원만히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5월 28일 총무원 1기 집행부 부·실장 스님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기획실장 일감스님, 재무부장 보경스님, 문화부장 해일스님은 유임된 가운데 “오는 6월 중앙총회 임시회를 앞두고 경력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대거 중용했다”는 평을 받은 이날 인사를 통해 총무원 2기 집행부 인사가 마무리됐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불교신문 주간 주경스님 임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제 2기 집행부 인사와 함께 불교신문 주간에 주경스님(사산 부석사 주지·사진)을 임명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임명장을 수여하며 “중앙총회 총무분과위원장부터 총무원 기획실장에 이르기까지 종단 소임을 두루 거친 스님이 불교신문 주간을 맡아줘 고맙다”고 격려했다.



신임 주간 주경스님은 1986년 수덕사에서 원당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9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총무원 기획실장, 제14·15대 중앙총회의원, 서울 역삼정소년수련관장 등을 역임했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도난 정보가 경매시장에 ‘버젓이...’

총무원 문화부 헌장 적발

“문화재 4점 도난품 확실
실소유자에 돌아가게 할 것”

도난 문화재 4점이 버젓이 고미술품 경매 시장에 나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문화재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도난 문화재들은 고미술품 경매사 마이트옥션이 ‘조선시대 불교미술 특별 경매’에 내놓은 작품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문화재

청, 경찰 관계자 20여명은 지난 5월 29일 공아트스페이스 지하 3층 전시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벌였으며, 문화재들이 도난품임을 최종 확인했다. 조계종 문화부는 26일 마이트옥션 경매 도록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난품임을 확인하고 문화재청과 경찰에 신고했다.

문화부는 2004년도 도난당한 충북 유형문화재 제206호 제천 정방사 불상을 비롯해 청송 대전사 신증명화도,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삼척 영은사 영산회상도 등 총 4점과 이반에 마이트옥션이 출품한 작품이 동일

한 문화재라고 주장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일단 4점은 도난품으로 확인돼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옮겨가 임시 보관하기로 했다”며 “문화재청 감정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최종 확인절차를 거쳐 실소유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문화재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 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나머지 문화재에 대해 도난진위 여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자비의 정토 구현하자”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 봉행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조(宗祖) 도의국사(道義國師)의 수행 정신을 기리고 힘 있는 정신을 서원하는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를 봉행했다.

원로의 의장 민운스님, 원로의 원 인환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다례는 개회를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도의국사 행장 소개, 추모사, 종사영반, 헌화,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진제 종정예하는 원로의원 혜승스님이 대독한 범어에서 “금일 조전(祖殿)에 아손(兒孫)들이 정성껏 올리는 차공양은 문수(文殊)의 감로다라로 변할지니”라며 “조사님의 호국염원(護國念願)이 사바에 가득하여 만백성의 평안과 남북통일이 하루빨리 성취되어지이다”라고 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추모사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찢을 수 없

는 비탄과 한숨 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서 “종조 도의국사님의 다례를 맞아 우리 후학들은 지위진 사화적 책무를 깊이 되새기며 이 땅에 지혜와 자비의 정토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의국사는 8세기 신라에 최초로 선(禪)을 전하고 조계종의 원류인 가지산문(迦智山門)을 개창했다. 784년 당나라로 유학해 광부의 보단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

후 홍주 개원사에서 서당지장 선사로 불법을 이어받고 도의라는 호를 받았다. 821년 귀국해 널리 선법을 펴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40여 년간 설악산 진전사에서 수행하다 제자인 염거스님에게 법을 전하고 입적했다. 종단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도의국사의 기일인 음력 5월 2일 다례제를 거행하고 있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템플스테이 심신치유 효과 연구 참가자 모집

연구 목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신경생물학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함

참가 대상 선정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56세 미만 건강한 성인 남녀 (1958년 6월 2일 출생부터 ~ 1994년 6월 1일 출생까지) 연구 시행일 직전 3개월 간, 전일제 혹은 파트 타임으로 일정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및 대학생

제외 기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1개월 이내 복용 중인 정신과 약물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경우, MRI 촬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자 모집은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일 정 2014년 7월 ~ 11월 중 격주로 시행 (1회당 3박 4일)

장 소 지리산 대원사 (경남 산청 소재, www.daewonsa.net)

참가자 혜택 • 3박 4일 템플스테이 참가비 무료 (50만원 상당의 참가비 전액지원)
• 뇌MRI, 혈액 검사 등 무료 • 3회 평가 완료시 12만원 추가 지급

신청기간 2014년 6월 2일 ~ 10월 24일

접수처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간호사 유보람
Tel : 02 - 2072 - 1780 E-mail : naoo11@naver.com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